

우리의 아이들을 위한 작은 걸음

>>>>> 박 정 현 /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사무국장

이 시대의 조류에 편승하지 않고
아이들이 원하는 삶을
최대한 밀어주고 지켜봐주며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밀어 주자.

‘세상이 아프면 내 아이도 아프고 그러면
나도 아프고, 내아이 아프면 당신아이도 아
프고 당신까지도 아파질테니 함께 같이 행
복하게 사는 방법을 찾아 보자고.’

‘고구마 삶아 왔어요.’
‘어서 오세요.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
으셨죠?’
‘괜찮아요. 시내 구경도하고 좋은걸요.’
멀리 일산에서 한 주도 빠짐없이 화요 운영
위원회의에 참석하시는 이경자 선생님 손에
는 거의 매주 맛있는 간식까지 텀으로 들려져
있다.
이번 주는 이심전심이었는지 신순용 선생님
까지 고구마를 가져 오셔서 푸짐한 간식을 수
다양념까지 곁들여서 맛있게 나눌수 있었다.

13년전 이땅에는 성적을 비판한 청소년의 자
살이 연일 신문을 장식하고 입시교육의 폐해에
멍들어가는 우리 아이들은 꿈과 용기를 잃은채
하루하루 버겁게 지친 삶을 이끌어갔으며 학부
모들도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위해 무언가 해
야된다는 것은 알면서도 내 자식이 경쟁에 뒤
떨어져 낙오자의 대열에 설까봐 불안하여 이러
지도 저러지도 못한채 숨죽여 지내던 때가 있
었다.

이러한 총체적인 교육의 위기를 더 이상 방
치 할 수 없었던 몇 분의 교육학자와 학부모들



이 힘을 합하여 학부모도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교육문화운동을 전개하고자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를 창립하기에 이르렀다. 지금이야 시민단체에서 많이 쓰는 '연대'라는 용어가 흔하였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그 용어가 생소하여 용어선택 때문에 몇 번의 회의를 거듭했던 기억이 새롭다. 당시 간사일을 맡고 있던 나로서는 우리 교육의 문제점은 깊이 인식하고 뜻을 같이 하였지만 학부모가 아니었기에 피부로 느낄만큼의 전투적(?) 자세는 갖추어지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이제는 두아이의 엄마가 되고 결혼, 육아, 자녀교육 등의 사회교육이 보편화 되지 않은 우리나라 실정에서 학부모들끼리 모여 정보와 지혜를 나누고 내 아이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아이들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힘을 모아 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슴 뿌듯하게 느껴지는지. 특히 자녀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이 시대의 조류에 편승하지 않고 아이들이 원하는 삶을 최대한 밀어주고 지켜봐주며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믿고 기르는 우리 회원 선생님들의 삶의 방식은 핵가족시대에 태어나 뚜렷한 교육철학의 모델이 없는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도움

이 되는지.

비록 지금까지 가난한 시민단체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다해도 그 어느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우리의 미래는 기다리고 가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까한다.

오늘도 10월의 4개 지역강좌를 앞두고 부천, 용인, 수원, 이천에서 먼길을 마다하지 않고 학부모연대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선생님들은 이번 강좌가 어떻게하면 더 많은 학부모에게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모였을때마다 아이디어를 나누었고 그 결과 이번 강좌의 주제가 부모가 지켜주어야 할 아이들의 인권만큼 지금 아이들의 인권침해 상황을 상황극으로 표현해 보자는데 뜻을 모으고 그 준비작업에 한창들이시다. 누구말대로 내돈과 시간을 들여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이런 일들을 왜하냐고 물으면 우리 선생님들은 무어라 하실까. 아마도 이렇게 답하지 않으실까. '세상이 아프면 내 아이도 아프고 그러면 나도 아프고, 내아이 아프면 당신아이도 아프고 당신까지도 아파질테니 함께 같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찾아 보자고.' **PDFK**